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전제성**

Ⅰ. 머리말
Ⅱ.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대구분
Ⅲ. 제1세대 동남아연구: 선구적 자각과 소망
Ⅳ. 제2세대 동남아연구: 연구의 조직화와 발전
Ⅴ. 제3세대 동남아연구의 출현?
Ⅵ. 유기적 지식인을 위하여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논문이다. 연구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기관 형성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2세대 구분법에서 더 나아가 3세대 구분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연구사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이 부각되는 제3세대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의 소수자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자력갱생의 연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남아연구 신세대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활동과 '국제관계·지역전문가'로의 변신을 촉구한다.

주제어: 지역연구, 비교정치, 동아시아, 국제관계 · 지역전문가, 유기적 지식인

---

*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데이터 수집과 분류를 도와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의 서지원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는 오로지 필자의 책임이다.

**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동남아 연구는 한국에서 급속하게 발전한 지역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다. 70년대 말까지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황무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2십년간 연구업적, 연구자, 연구기관의 측면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한국 동남아연구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 불가피한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획, 특히 최근에 출현한 '제3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기획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은 '연구업적'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자'와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구의 역사는 연구자가 이룩한 역사이며 연구업적과 함께 연구기관도 그들이 이룩한 불가역적 성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동남아 연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연구의 역사를 기술할 때 연구자 개인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동남아 연구자들이 연구기관을 형성해 왔던 방식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고 자주적이었기 때문에 타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로부터도 많은 질문을 받아왔던 바 이번 기회에 기관형성의 역사까지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1)]

연구방법은 우선 연구업적의 분석을 위해 한국 동남아연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성 있는 학술지인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에 14년간 수록된 논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선배 동남아 연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추진과 기관형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

1) 연구업적의 분석에 있어서는 필자가 정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업적, 특히 어문학 분야의 업적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물론 1990년대 동남아 연구 지망생으로서 2000년대 신진연구자로서 필자의 경험 역시 성찰적 회고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에 대한 기존의 2세대 구분법을 넘어서는 필자의 3세대 구분법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1980년대에 제1세대 연구자들의 선구적 인식과 소망, 이어서 1990년에 그 출현을 선언했던 제2세대 연구와 활동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동남아연구사를 평가하고, 끝으로 2000년대 '제3세대'의 성격과 소명을 감히 주장해보고자 한다.

II.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대구분

필자는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대를 삼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세대구분은 1990년대 이전의 "제1세대"와 이후의 "제2세대"를 나누는 신윤환 교수의 세대구분이었다(신윤환, 이성형 1996, 159-62; 조흥국 2001, 49). 정확히 말하자면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한다. 바로 이 해에 동남아 지역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귀국한 미국 유학 출신 학자들 5명이 〈동남아정치연구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사건을 제2세대의 역사적인 자기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윤환 인터뷰, 2005/12/30). 그런데 필자는 2003년 〈한국동남아연구소〉 창립총회가 '제3세대' 동남아연구의 출범을 알리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세대삼분구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표 1〉 한국의 동남아연구 '세대삼분구도'

세대구분	1세대 연구	2세대 연구	3세대 연구
주도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구자	비전공자	동남아전공자	
연구방법	개관 연구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	지역연구(장기현지조사)
연구분야	경제 및 국제관계	국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추가	
연구기관	미형성	연성 조직	경성 조직

〈표 1〉은 필자의 세대구분법을 압축한 것이다.[2]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1세대 한국 동남아연구는 주로 비전공자들에 의한 개관적 소개위주의 연구였으며 연구 분야는 경제 및 국제관계에 치중되어 있었다. 동남아연구의 선구자였던 제1세대는 동남아 각국의 국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전문학회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그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은 제2세대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2세대 연구는 주로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을 비교연구의 사례로 포함하거나 단일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돌아온 전공자들이 주도하였다. 제2세대들은 1990년 〈동남아정치연구회〉를 만들어 1992년에 〈동남아지역연구회〉로 발전시켰고, 제1세대와 연대하여 〈한국동남아학회〉를 설립함으로써 동남아 전문 연구조직의 출범과

2) 물론 이 표는 '일탈사례들'을 과도하게 배제한 '난폭한' 일반화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연구방법 및 분야에 있어서 시대를 앞서간 연구자가 있는가 하면 시대에 뒤처진 연구자가 있는 법이라 세대마다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일탈적 연구자'들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세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연구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초월적 연구자들'이 존재하므로 세대가 단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2세대의 시기에 1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3세대 스타일의 연구자가 시대를 앞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의 세대구분 표를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감도 정도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두 조직은 전국적이고 초대학적인 연구조직으로서 1990년대 한국동남아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였지만 둘 다 네트워크형 '연성연대'(soft solidarity) 조직이었다. 연구기관의 조직적 비약을 위해서는 제3세대를 기다려야 했다.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제3세대는 제2세대와 연대하여 기존의 〈동남아지역연구회〉를 좀더 딱딱한 '경성연대'(hard solidarity)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재편하기에 이른다. 제3세대의 주류는 이전 세대의 후속세대 육성 노력의 성과로서 학생시절부터 동남아연구를 지망하고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학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관행을 일찍이 경험한 '지역연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연적' 연구자가 아니라 '의식적'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세대분류에 따라 각 세대별 연구와 조직적 성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제1세대 동남아연구: 선구적 자각과 소망

> 오늘의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인식의 부재와 이익의 실재로 성격 지을 수 있다. 인식의 부재 속에서 시도되는 이익의 추구는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세 자체를 흐트러뜨릴 위험마저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속의 한국'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신중히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고립이란 위험과 직면할지도 모른다(이홍구 1981).

> 해방 이후 냉전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투쟁을 벌여 오는 동안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은연중 그 시각이 선진강대

국과 공산권 및 구라파 중심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우리의 학구적 관심도 제3세계로 통칭되는 후진국 일반은 물론 특히 동남아에 대하여도 그 관심이 최근까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안청시 1981, 1).

앞에 인용된 두 문단은 한국 동남아연구 1세대의 선구적 상황인식과 연구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대 동남아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안청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주도하여 1981년에 서울대출판부에서 발간되었던 『동남아와 ASEAN』이라는 책의 서두를 장식한 문단들이다. 25년 뒤 오늘날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타당해 보일 정도이니 당시 연구자들의 선구적 자각은 놀라울 정도이며 또한 이들이 절감한 시급성에 절로 공감이 간다.

해방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황무지"로서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동남아연구를 왕성하게 확대하고 있던 경향과 극적인 대조를 보였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국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 주요국 한국공관 설치, 아세안 설립,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 출범은 외교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국민적 차원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1970년대의 수출입국 정책도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관심을 격상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동남아에 관한 연구서와 보고서가 이전 시기보다 양적으로 증대하고 주제도 비교적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교, 군사, 경제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가 주종을 이루고 동남아의 국내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안청시 1981, 4-5).

이러한 결핍을 인식한 제1세대는 경제와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외에도 동남아 국내 정치사회적 주제에 관한 연구에 도전하였고 그 효시가 바로 안청시 교수 등(1981, 6)의 연구였던 것이다. 이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서적들과 한승주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하던 시

기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프로젝트 성과물들이 국문 및 영문 서적으로 연이어 발간되는 등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연구업적들이 산출되었다(김국진 1991, 97-100).[3)]

그러나 당시의 연구서들은 대체로 "2차 문헌 중심"의 자료를 이용한 "소개 위주"의 논문을 작성하는 한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조홍국 2001). 그 이유는 우선 시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안청시 교수의 진술처럼 "짧은 시간 검토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동남아와 ASEAN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하였기 때문이다(안청시 1981, 1). 그래서 안청시 교수는 "시작만 했지"라고 당대의 상황을 압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1세대 연구자들이 본시 동남아를 전공한 학자들이 아니어서 외교안보연구원의 김국진 교수가 지적했듯이 "연구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간헐적"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김국진 1991, 102-103).

끝으로 동남아연구자들을 위한 조직적 기반의 결핍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김국진 교수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으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80년대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도 지역연구의 지속성의 결여 및 간헐성 등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국진 1991, 100). 그러면서 김국진 교수는 "아직까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학회조차도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의 미비한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면서 개탄하였는데(김국진 1991, 90), 그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2세대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

3) 제1세대 연구자는 정치학 분야에서 안청시(서울대),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이범준(성신여대), 김한식(국방대학원), 이우진(중앙대), 박재규(경남대), 이은호(청주대) 교수, 경제학 분야에서는 서동천(인하대), 손정식(한양대) 교수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한다(신윤환 이메일인터뷰 2006/02/10).

IV. 제2세대 동남아연구: 연구의 조직화와 발전

1. 동남아 전문연구자의 증가

1990년대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새로운 세대 연구자들이 충원되면서 연구의 증가 및 심화와 연구기관의 형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하는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그 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동남아를 박사학위논문의 사례로 포함시킨 학자들 즉 동남아 전문연구자의 본격적 출현과 증가를 언급해야만 한다. 〈표 2〉에서 보이듯이 80년대 말부터 동남아 관련 논문을 작성한 박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찍이 1972년에 베트남을 사례로 논문을 작성한 이은호 교수를 비롯하여 몇몇 선구적 예외가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동남아연구의 주력은 대체로 1988년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이다.

아울러 1990년대 초의 연구 환경도 동남아 연구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었다. 공산권에 대한 연구를 고무하던 '북방연구' 붐이 시들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남아 연구의 작은 붐이 일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로 인해 동남아에 대한 직접적 접촉기회 증대,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자본의 동남아투자 증가와 그에 따른 국제노동인권 및 "아류제국주의" 논쟁, 신흥공업국론의 성행과 "동아시아의 기적" 담론 덕분에 홍콩 및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비교적 관심의 증대, 또한 제3세계연구 정치학자들과 진보적인 학생들의 베트남 혁명, 버마식 사회주의, 필리핀의 민주화에 관한 관심,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제창한 세계화 구호와 이에 따른 해외지역연구 적극 지원 정책 등이 응축되어 동남아 연구의 작은 붐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제2세대 동남아연구자들 거의 모두가 대학의 교직에 조기 입성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의 동남아연구 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표 2〉 동남아연구 박사학위 취득 현황 및 전망: 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의 경우

학위연도	1972	1988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합계
지역일반/비교연구**		2	1	1	1 (5)	2	9
국제관계				1	0 (1)	1	2
인도네시아		1	1	1	5 (8)	5	13
베트남	1			5	3 (9)	1	11
태국		2	1	1	2 (6)	1	7
말레이시아			2	1	2 (5)		5
필리핀			2		2 (4)	1	5
미얀마				2	0 (2)	3	5
캄보디아						1	1
싱가포르						1	1
브루나이, 라오스, 동티모르							0
계	1	5 (6)	7 (13)	12 (25)	15 (40)	16	56

출처: 이 표는 Shin and Hwang 2004의 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 1) 괄호 속 숫자는 누계임

2) * 2005년까지의 현황은 학위논문에 근거한 것이지만, 2006~2010년의 전망은 한국동남아연구소에 등록된 박사과정생과 유학준비생 현황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3) ** 동남아 국가를 한국 및 타 지역과 비교하는 학위논문을 작성한 박사들은 동남아 국가별 연구자로 분류하였다.

2. 전국적 연구기관의 출범

1990년대 한국 동남아연구의 불가역적 성과는 공식적인 전문연구기관을 출범시킨 데 있다. 특히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박사명(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윤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5명의 학자들이 주도하여 〈동남아정치연구회〉를 결성하였던 일은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이 소그룹은 매월 동남아 연구서 독회를 추진하고 동남아 입문서들을 번역 출판하면서 1년 반만에 회원을 16명으로 확대하였다(동남아정치연구회 1991; 1992).

동남아정치연구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우학술재단의 독회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재단빌딩을 세미나 장소로 사용하고 소액의 회의비를 지원받았다. 이 때 연구회의 총무를 담당했던 신윤환 교수가 대우학술재단 뉴스레터에 연구회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 동남아연구의 제1세대와 제2세대를 구별하는 언급이 등장한다. 돌이켜보면 이 짧은 글이 바로 제2세대의 출현을 알리는 선언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안청시 교수를 비롯한 제1세대 연구자들이 동남아 전문 학회의 창립을 제안하고 2세대 연구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동남아 연구자들의 숙원이던 〈한국동남아학회〉가 1991년 6월 29일에 설립되기에 이른다. 학회 창설을 적극 주창했던 안청시 교수는 신윤환 교수에게 학회 창립을 위한 간사를 맡겨 실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후 초대 학회장으로 영입된 한승주 당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기 학술대회와 별도로 한-아세안 학술교류사업을 제안하였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학회 운영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남아학회는 오늘날 한국 동남아연구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발전한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를 1992년에 창간하는 데 성공하였다.

2세대 연구자들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한 편으로 본격적인 학제적 지역연구를 위해 1992년 8월에 〈동남아정치연구회〉를 〈동남아지역연구회〉로 전환시킨다.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경제학, 경영학 학자들 스물네 명으로 출범한 이 연구회는 소속대학교와 학문분야를 초월한 전국적 학제적 조직이고 사무연구 공간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국동남아학회와 유사하지만 회원의 모집과 규율에 관한 내규가 매우 강하여 학회와 성격이 구별되는 조직이었다.[4)]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활동은 참신한 기획과 뚜렷한 성과로 돋보였다. 연구회의 활동은 월례발표회, 공동출판, 공동현지조사, 동남아지역

전문가교육, 대학원생 조직화 등 5대사업으로 요약된다. 우선, 연구회는 결성이후 10여 년간 중단 없이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들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미간행 논문을 발표하고 장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원 논문의 질적 향상과 회원의 전공 지역과 학문을 초월한 소통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출판활동은 공동번역출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연구출판으로 발전했다. 연구회는 동남아에 관한 번역서들을 추가로 출판하고(동남아지역연구회 1993; 조흥국 외 1997; 정연식 외 2005), 본격적인 공동연구의 성과물들을 발간하면서(동남아지역연구회 1994; 1995; 1996; 김민정 외 1997; 김영수 외 2001; 고우성 외 2001) 본격적인 동남아 지역연구를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공동현지조사는 회원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단체로 현지 조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자기가 전공한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원들 사이에 친근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아 호응이 좋았다. 외부에는 단체해외여행 정도로 알려지면서 연구회가 매력적인 조직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현지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남은 시간동안 최소비용으로 때때로 모험적인 여행을 감행하고 현지에 대한 정보와 인상을 함께 나누는 학구적 여행이었다.

동남아지역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은 동남아로 파견되거나 동남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들과 동남아 전공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체를 단독

---

4) 동남아지역연구회는 회원관리에 있어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를테면 신입회원 선발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입회 가능하였으며 회원이 되었더라도 2년간 회비를 내지 않거나 1년간 월례발표회에 과반수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제명투표의 대상이 되는 엄격한 회원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하였다.

섭외하여 추진되는 '수요자 주문 방식'과 1주일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공급자 주도 방식'이 병행되었다. 일종의 '수요창출형 마케팅'이라 표현할 수 있었던 이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의 사회적 가치실현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을 남겨 연구회 운영자금 충당에 도움이 되었다.

회고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전개한 대학원생 조직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었다. 연구회는 창설 1년 만에 회원추천방식으로 10여명의 대학원생들을 "연구회원"(현 "준회원")으로 영입하였다. 연구회는 대학원생 모임에 월 1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하고 교육이사를 두어 학생들의 세미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교육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대학원생들을 총회의결권만 없었을 뿐 월례발표회, 공동현지조사, 직장인대상 지역전문가교육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번역 등 모든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대학원생들이 세미나 참석 지도를 요청하면 회원들은 기꺼이 화답하곤 했다. 대학원생 교육프로그램은 제3세대의 출현과 그들의 제2세대와의 연대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자원동원은 조직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제2세대 연구자들은 1990년에 동남아정치연구회 결성을 논의한 첫 모임에서 식사비를 거둬 낸 이래 2003년 연구회가 소멸을 다 할 때까지 회비 이외에 발전기금을 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지역연구회가 10여 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외부의 지원과 그것을 동원하려는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동남아정치연구회 시절부터 이용되던 대우학술재단 독회지원프로그램이 조직 출범시기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두 번째로 한진그룹(현 대한항공) 〈21세기한국재단〉의 조건 없는 후원을 1993~1997년까지 5년간 받으면서 조직을 공고화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5]

끝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결성된 〈컨소시엄 동아시아 연구단〉 활동의 직 간접적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서강대 동아연구소 소장이었던 신윤환 교수는 60명의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을 모아서 이 초대형 연구단을 결성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에 도전하여 재단 역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속된 동아시아연구단에 참가한 동남아연구자들은 모두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회원들이었고 현지조사에 근거한 연구 성과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각 두 권씩 여섯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발간하였다(박사명 편 2004; 2005; 윤진표 편 2004; 2005; 오명석 편 2004; 김민정 편 2005).

연구단 활동을 계기로 동남아지역연구회 회원들이 중국 및 일본 등 다른 지역 연구자들로부터도 연구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게 되고 한국적 동아시아 개념 속에 동남아를 집어넣는데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연구소의 학술지 『동아연구』에 2000년 이전에는 단 4편에 불과했던 동남아 관련 논문이 2001년 이후에 전체 논문의 3분의 1 이상이나 실리게 된 것도 연구단 활동 덕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단 참가는 동남아연구기관의 도약에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

5)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아연구소 소장을 지낸 바 있었던 이상우 교수는 동남아 연구를 진작시킬 필요성에 동감하여 자신이 이사로 있던 21세기한국재단의 지원을 동남아지역연구회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21세기한국재단은 1993-1997년까지 5년간 총 2억 2천여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였으며 재단의 사무공간과 세미나 장소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가 1년만에 지원이 중단된 다른 지역연구회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동남아지역연구회가 성실하게 출판물을 발간하고 자금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신뢰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원이 지속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신윤환 이메일인터뷰 2006/02/10). 21세기한국재단의 내부 사정으로 지원이 종결된 뒤에는 박번순 박사의 배려 덕분에 삼성경제연구소 공간을 월례연구발표회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표 3〉『동아연구』의 동남아 연구 논문

	1982-85년 (1-6집)	1986-90년 (7-21집)	1991-95년 (22-30집)	1996-2000년 (31-39집)	2001-05년 (40-49집)	계
동남아 논문	0	3	0	1	26	30
전체 논문	54	175	82	69	69	449
비중	0%	1.7%	0%	1.5%	37%	6.7%

주: 동남아에 관하여 외국인이 쓴 논문, 비교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아시아/동아시아 지역일반 논문의 경우는 동남아가 비중 있게 들어간 경우만 포함하였다. 『동아연구』에 개제된 동남아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범준 1986, 김국진 1986, Biernazki 1986, 신윤환 1996, 2004, 최난경 2002, 김 상 2002, 이한우 2002, 2003, 전제성 2002, 2003, 2004, 이요한 2002, 이동윤 2002, 이재현 2002, 김예겸 2003, 노영순 2003, 김민정 2003, 2005, 김동엽 2003, 2005, 조홍국 2003, 윤충로 2003, 신윤환, 이갑윤 2004, 박사명 2004, 유인선 2005, 양길현 2005.

3. 연구 성과의 증가 및 다각화

연구의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만 살펴보아도 연구의 양적 증가, 연구방법의 발전, 주제영역 및 대상국가의 확산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학회지가 2000년을 기하여 연간 2회 발간으로 증편될 정도로 기고논문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4〉를 보면 여전히 사례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비교를 통한 일반화 시도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발전의 징표는 현지자료 반영정도의 괄목할 만한 신장이다. 현지어 문헌을 인용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학회지 초창기에는 전체게재논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2000년대에 이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현지관련성이 증대할수록 독창적이고 국제적인 논문이 나올 가능성도 따라서 증대하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발전을 보증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동남아시아연구』 문헌통계(1): 연구방법과 주제

		1992-1995	1996-2000	2001-2005	계
논문총수		33 (100%)	57 (100%)	90 (100%)	180 (100%)
연구 방법					
지역일반		6 (18%)	10 (18%)	13 (16%)	29 (16%)
비교연구		1 (3%)	3 (5%)	12 (13%)	16 (9%)
사례연구		26 (79%)	44 (77%)	65 (72%)	135 (75%)
현지자료 반영		9 (27%)	23 (40%)	48 (53%)	80 (44%)
연구 주제					
한국관련 연구		5 (15%)	4 (7%)	10 (11%)	19 (10%)
정치	정치변동	5	1	11	17
	정치과정	0	2	7	9
	정치경제	3	5	7	15
	소계	8 (24%)	8 (14%)	25 (28%)	41 (23%)
외교 · 국제관계		7 (21%)	6 (11%)	6 (7%)	19 (11%)
사회	구조/제도	1	3	1	5
	농촌/농민	1	0	4	5
	여성	1	0	4	5
	소계	3 (9%)	3 (5%)	9 (10%)	15 (8%)
문화	종족/종교	1	8	8	17
	문화변동	1	2	3	6
	정치문화	0	3	3	6
	소계	2 (6%)	13 (23%)	14 (16%)	29 (16%)
경제	경제정책	3	10	10	23
	국제경제	2	7	5	14
	소계	5 (15%)	17 (30%)	15 (17%)	37 (21%)
역사	연구동향	1	0	0	1
	고대사	3	3	3	9
	근대사	2	1	6	9
	소계	6 (18%)	4 (7%)	9 (10%)	19 (11%)
어문	어학	0	2	4	6
	문학	1	2	5	8
	소계	1 (3%)	4 (7%)	9 (10%)	14 (8%)

1990년대 이후의 연구주제는 1세대에 주종을 이루었던 국제관계 연구, 경제학 연구, 한국 관련 연구 이외에 국내정치, 사회, 문화, 어문학 연구가 늘어났으며, 특히 인류학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문화 관련 연구

가 대폭 증가하였다. 연구대상국가에 있어서도 〈표 5〉에 나타나듯이 기존에 선호되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국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그 밖의 나라들을 사례로 하는 연구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구가 크게 증대하여 '5강구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싱가포르, 미얀마(버마), 캄보디아 연구도 희소하지만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주제와 사례 측면에서 '다각적 확산'의 경향이 선명했다고 할 수 있다.[6]

〈표 5〉『동남아시아연구』 문헌통계 (2) : 연구대상국가

	1992-1995	1996-2000	2001-2005	계
베트남	8 (30%)	11 (22%)	16 (20%)	35 (23%)
태국	3 (11%)	10 (20%)	18 (22%)	31 (20%)
인도네시아	5 (19%)	10 (20%)	12 (15%)	27 (17%)
필리핀	7 (26%)	8 (16%)	10 (13%)	25 (16%)
말레이시아	1 (4%)	4 (8%)	14 (18%)	19 (12%)
싱가포르	2 (7%)	2 (4%)	5 (10%)	9 (6%)
미얀마	0	2 (4%)	3 (4%)	5 (3%)
캄보디아	1 (4%)	1 (2%)	1 (1%)	3 (2%)
라오스	0	1 (2%)	0	1 (0.6%)
브루나이	0	0	0	0
동티모르	0	0	0	0
계*	27(100%)	49(100%)	79(100%)	155(100%)

주 : * 게재된 논문 중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연구는 총계에서 배제하였다. 비교연구는 사례로 다룬 나라들을 모두 표시하여 계산하였다. 이를테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한 논문 1건은 태국 1건과 인도네시아 1건으로 중복 기입하였다.

6) 물론 1990년 이후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양질의 연구만 산출했다고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역사학자 조흥국 교수는 2001년도의 논문에서 1990년대 한국의 동남아 연구가 양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발전을 수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제2세대 연구자들도 여전히 2차 문헌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독창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았고(54),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 "불가피한 외도"를 범할 때 다른 학자들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옮겨오는 "베끼기" 식 글쓰기가 나타나곤 했다고 비판하였다(56).

V. 제3세대 동남아연구의 출현?

1. 제3세대의 정체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2세대는 분명한 자기선언을 통하여 그 출현을 알렸다. 그러나 제3세대의 선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3세대는 출현하였는가? 흥미롭게도 제3세대 출현의 징표를 읽어낸 이들은 제2세대들이었다. 제2세대의 '특수한' 학자였던 신윤환 교수와 제2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박사명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 요즘 젊은 박사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약하지만 3세대라고 볼 수 있다. 2세대들은 동남아로 학위논문을 썼지만 동남아를 가보지 않고 글만 읽고 논문을 썼던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신윤환 인터뷰 2006/12/30).

> 우리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독자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독회였고 번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박사들은 현지조사 능력을 갖추고 바로 현장 리서치에 뛰어든다. 게다가 학위논문을 외국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 (박사명 인터뷰 2006/01/03).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제3세대는 제2세대보다 한 층 더 '지역연구'에 가까운 연구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어 자료와 현지 조사에 바탕을 둔 학위논문을 작성한 제3세대의 합류가 『동남아시아연구』 게재논문의 현지 관련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세대의 연령은 한국동남아학회 실질적 '활동회원'의 40%를 차지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박사들로 추정된다.[7] 제3세대의 상당수는 2000년대 들

---

7) 2004년 당시 학회 총무이사였던 박승우 교수가 '활동적인' 회원 67명의 설문응답을 분석

어서 동남아지역연구회에 입회한 신진연구자들이다. 현재 동남아 연구를 목적으로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들도 현지어를 배우고 논문작성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3세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들이 귀환해야 제3세대의 본격적 완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구의 국제화를 새로운 세대 연구자의 징표로 삼기에는 아직 이르고 어찌 보면 부당하다. 국제적 네트워킹과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제1세대야말로 가장 국제화된 학자들이다. 요즘 신진연구자들이 한국동남아연구사상 처음으로 학위논문을 외국출판사를 통해 발간하는가 하면(Hwang 2003; Choi 2004),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방법을 통해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기고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해외자원의 조직적 동원 측면에서는 더욱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8]

국제성보다 더 선명한 제3세대적 특징은 목적의식성이다. 현지지향성도 바로 이런 목적의식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애초부터 동남아연구를 지향하여 진학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3세대는 동남아 연구에 있어서 더 이상 우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고 의식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궤도에 진입한 상황

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만 55세 이상이 14.9%, 45-54세가 41.8%, 35-44세가 40.3%로 나타났다. 또한 64%가 대학교수, 4%가 연구소 전임근로자인 반면에 25%는 시간강사나 계약직 연구자였다(Park 2004). 따라서 2004년 당시 제3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 박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중국 바람' 때문에 1990년대의 동남아 연구 붐이 조기 종결된 상황에서 시장에 배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 아시아관련 SSCI급 학술지 *Asian Survey, Journal of Asian Studies, Critical Asian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최근 3년치를 들여다보면 한국 동남아연구자의 기고는 한 편에 불과하다. 또한 제3세대가 국내적 맥락을 중시하는 지역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제관계 연구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에서 학업을 시작하여 선배세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남아 연구자로서 제3세대가 지닌 강한 목적의식성은 견고한 연구소 창설 제안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2. 한국동남아연구소 설립

제3세대는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한국동남아연구소〉 전환을 위한 사단법인 창설 제안, 기획, 실무를 주관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가 2002년 8월부터 2년간 앞서 소개된 콘소시엄 동아시아연구단에서 활동했던 것이 연구소 창설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구단에 고용된 동남아 신진연구자들은 좁은 연구실에서 바글대면서 거의 매일 대면하고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덕분에 상시적 토론과 논전을 거듭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소 창설방안이 뜨거운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신진연구자들의 희망은 연구단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넘어서 성과의 조직적 환류와 축적이 가능한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항구적 조직의 결성이었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은 연구단 경험을 통하여 전임연구원 및 조교 인건비와 연구팀 소속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이 축적 가능한 조직결성을 위해 최소한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발견에 이르게 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원금을 수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수주가 가능하려면 연구회라는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했다.[9]

---

9) 신입회원 중 연구소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연구자는 황인원 박사였다. 황 박사는 호주국립대에서 말레이시아 정치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교토를 거쳐 귀국한 뒤에 기

제3세대의 법인화 감행의지에 대하여 제2세대가 지지하고 부담을 나눠지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남아지역연구회는 해체되고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전환된다. 2003년 12월 13일에 동남아지역연구회의 마지막 총회이자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기존의 네트워크형 '연성'(soft) 조직은 사무 및 연구 공간, 공동자료, 위계구조, 민법과 세법에 준한 행정 및 회계 시스템을 갖춘 '경성'(hard) 조직으로 전환된다.

본시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창설은 제2세대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동남아지역연구회의 영어명칭이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의 영어이름 'ISEAS'를 따라서 작명된 'KISEAS'(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이었고 이는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영어명칭으로 그대로 존속된다. 물리적 측면에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처럼 세계적인 자료실, 연구실, 출판부를 갖춘 연구소의 설립을 희구했지만 각기 대학에 자리 잡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망은 희미해 졌다. 이 때 '목적의식적이고 혈기왕성하지만 계약직인' 연구자들이 연구회에 대거진입하고 연구소 건설을 제안함으로써 제2세대의 꿈이 실현가도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이다.[10]

회가 닿을 때마다 특유의 '집요한' 화법으로 연구소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필자는 2003년 초 필리핀에서 수행된 동남아지역연구회의 공동현지조사 기간 중 아닐라오 해변에서 벌어진 토론에서 젊은 박사들이 보여준 저급한 소통수준을 근거로 시기상조론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축적 가능한 항구적 연구소가 언젠가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고 그런 작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인력이 등장한 상황이 바로 연구소 설립의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결국 연구소 건설에 동의하고 그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동남아지역연구회의 신입회원 10명이 사단법인으로의 조직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필자는 모임의 명칭을 연령대와 계약직의 처지를 반영하는 "hungry young turks"라고 정한 바 있는데, 이것이 제3세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담론이었던 것 같다.

10) 2세대들은 동남아지역연구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신윤환 교수가 회장, 정영국 교수가 총무이사로 재임하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변호사에게 연구회 자료들을 보내서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정영국 총무이사의 갑작스런 죽음

〈표 6〉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학술대회 개최

명칭	주제	시기	후원 기관
정세 발표회	법인화 기념 선거참관결과 발표: 인도네시아 2004년 4월 5일 총선	2004. 5. 3	서강대 동아연구소 (공동개최)
	The Perils and Promise of 2004 Philippines Elections (Morales, 필리핀대학교 교수)		
국제 학술 대회	International Political Forum for Asian Scholars: Globalization and Asian Response - Crisis, Challenge, and Reorientation	2004. 6.25-26	한국정치학회 (공동개최)
	Building East Asian Identity Workshop	2005. 1.30-2.1.	외교통상부
	Searching for Gender-Sensitive Cultural Policy in Korea and Southeast Asia	2005. 10.27-28	문화관광부
외국인 학자 강연회	ASEAN in the Global Economy: Domestic and External Challenges (Teofilo C. Daquila,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2004. 6.12	단독
	법인화 1주년 기념: Bourgeois Oligarchy in Southeast Asia (Benedict Anderson, 코넬대학교 교수)	2005. 4.26	서강대 동아연구소 (공동개최)
	Vietnamese Politics: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David Koh, 싱가포르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005. 5.30	단독
국내 학술 대회	동남아의 구조적 분화와 문화적 동화	2004. 11.5	한국동남아학회 (공동개최)
	동남아의 정치: 선거정치와 정치리더십	2005. 4.9	한국동남아학회 (공동개최)
한-아세안 포럼	1차: Crisis of Legitimacy in the Philippines (Maris Diokno, 필리핀국립대 부총장)	2005. 8.25	SEASREP: 동남아연구 교류프로그램 (공동개최)
	2차: East Asian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mplications of the 1st East Asian Summit	2005. 11.26	
	3차: Southeast Asia, A Global Crossroads (치앙마이)	2005. 12.8-9	
	4차: Recent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자카르타)	2006. 2.14-15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연대 워크숍 (아쩨 지진해일 피해자 구호성금 전달식 병행)	2005. 6.16-18	참여연대 (공동개최)

으로 중단되었다.

연구회 마지막 회장이자 연구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선출된 윤진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신입회원들과 함께 연구소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립발기인 대회, 창립총회, 창립이사회, 위계적 조직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작성, 법인신청서 제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 반년 이상의 집중적인 노동을 요하는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한 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로부터 3백~1백만 원씩 기부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의 동남아연구기관은 대체로 국가나 대학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원의 성금으로 가능했던 한국동남아연구소 창설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범자금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자주적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지원하여 대학 외부 민간학술단체로서는 드물게 연구비를 지원받는 데 성공하였고 2005년도 지원사업도 연속 수주함으로써 전임연구원 및 조교 인력 고용, 연구실 및 자료실 설치,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11] 또한 한국동남아학회와 협력하여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사무국이 합의해야 가능한 한-아세안학술교류기금을 수주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공고화 가도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12] 연구소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학술활동의 역정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

11) 2004년도 및 2005년도 연구의 책임자는 박사명 교수였으며,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2004년도-윤진표, 김민정, 황인원, 전제성; 2005년도-채수홍, 권 율, 이재현, 황인원, 전제성.

12)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한-아세안학술교류기금 수주는 오명석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가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의 일이며 황인원 국제부장이 주도하여 이룩한 업적이지만, 연구소 이사장으로서 학회장을 겸했던 박사명 교수, 부회장 신윤환 교수, 현 학회장인 김홍구 부산외대 태국어과 교수, 그리고 전 총무이사이자 현 부회장으로서 학회 국제협력사업 실무를 관장했던 박승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회 국제협력위원들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IV. 유기적 지식인을 위하여

제3세대의 출현과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출범이 본고의 '해피엔드'로 읽혀서는 절대 안 된다. 연구소의 출범은 '연성조직'에 익숙했던 소속 연구자들에게 '살림살이'를 유지해야 하는 '경성조직'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연성조직은 산출 대비 투입이 적은 조직이라면 경성조직은 투입을 일정 선 아래로 줄이는 게 불가능한 조직이다. 그리고 형식상 딱딱한 '경성'(hard) 조직을 '강성'(strong) 조직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강한 조직은 고도의 집행력, 자원동원력, 회원 규율 및 합의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강도에 있어서는 경성조직이 과거의 연성조직보다 저급할 수도 있다. 더구나 과거의 연성조직은 연구 환경의 상승기에 설립되었지만 경성조직으로의 전환은 연구 환경의 하강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필자는 나름대로 제3세대적 과제가 다음과 같이 선언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졸고의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유기적 지식인

일반적으로 지역연구자의 요건으로 현지어능력과 현지경험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다(이성형 2004; 이성형 외 2004, 8). 그러나 흔히 '특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연구하는 학계소수자들은 유기적인 성향을 그 덕목으로 추가해야 한다. 우리 동남아연구자들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연구진전과 기관형성의 동시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자요, 조직가요, 영구적인 설득가"인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을 모델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구조적, 근본적, 실천적, 조직적이라는 내포뿐만 아니라 학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 사이의 연계된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향과 능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13]

강성조직은 능력 있는 연구자도 필요로 하므로 제3세대의 절반정도가 한층 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누리는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의 동남아연구 발전에 부분적 장애를 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교직을 잡아서 "전통적 지식인"(traditional intellectual)이 되는 길을 통해서만 연구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동남아연구의 전반적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동남아연구에 대한 한국 학계의 부당하고 근시안적인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제3세대가 대학원교육이 활발한 '중심부' 대학에 교직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길만 상상된다면 무엇보다도 동남아연구 후속세대 육성의 절대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14]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남아연구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전국적 초대학적 동남아연구기관을 활동의 통로로 삼아 후속세대와 학교를 초월하여 만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학적 독립 연구소라는 통로가 동남아연구자의 정책적 사회적 영향력 신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의 미래는 연구자의 가치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제1세대와 제2세대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연구추진뿐만 아니라 자원을 동원하고 엮어낸 유기적 지식인들이 존재하였다. 민간재단의 조건

---

13) 유기적 지식인 개념은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옥중수고』에서 사용한 개념인데 그 내포를 약간 수정하면 우리 동남아연구자들의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람시는 "전통적 지식인"과 "유기적 지식인"을 구분하였는데, 유기적 지식인은 전통적 지식인에 비해 근본적으로 조직적이어서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전문지식 업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당파적인 대항헤게모니적(counter-hegemonic) 지식인 개념으로 고안되었다(Burke 2006).

14) 2000년대에 들어서 동남아연구 박사를 최근에 배출한 국내 대학교는 서울대, 서강대, 한국외대, 연세대, 동국대 등이다.

없는 후원이 기관형성과 연구진전에 큰 자원이 되었지만 그것을 동원해 낸 헌신적인 연구자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공공재를 창출하려는 노동 없이는 연구자들의 발판이 되는 기관의 공고화가 불가능하다.[15] 그런데 그 노동이 단지 전통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출신 학교의 경계, 사회과학과 인문학 간의 경계를 넘는 건 기본이고 농업이나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환경 및 산림자원학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동남아지역연구자라면 누구든지 만나야 한다. 또한 우리의 만남이 정부와 기업에만 국한 되서는 안 되고 아시아 연대와 교류를 주창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까지 포괄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생산한 지식의 효용을 높이는 길이며 어쩌면 국책성이 강한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와 달리 '한국형 동남아연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세대 간 유기적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기관의 발전 과정은 '세대 절충적 발전' 방식이었다. 1세대와 2세대의 연대는 한국동남아학회를 낳았고 2세대와 3세대의 연대는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탄생을 가져왔다. 2세대는 전문가를 기다리던 1세대의 공조제안을 받았으며, 3세대는 2세대에 의해 육성되거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구의 기풍과 활동의 방식은 새로운 세대가 중심을 잡았으며 그것이 발전을 유발했음을 간파해야 한다. 따라서 제3세대의 진취적 정체성과 주인의식의 앙양이 필요함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

15) 윤진표 현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은 2005년의 취임사에서 지난 시절 연구회의 정신을 "scholarship"과 "friendship"으로 압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회원들이 운영자금을 비롯한 조직의 각종 공공재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동이 존재하였음을 추가로 강조할 만하다.

2. 국제관계·지역전문가

우리는 국내적 자원동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자원까지 능히 동원할 수 있는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동남아연구 지원금을 끌어들이고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번역 소개하는 노동도 필요하다.[16] 또한 외국의 연구지원을 수주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한국 동남아연구의 국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화를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학자들이 취했던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17]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3세대의 지역연구 기풍을 중심으로 하되 제1세대의 국제관계 연구와 제2세대의 비교연구 성향을 다시 혼합(hybridization)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금의 상황은 국제관계연구와 지역연구의 혼합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연구의 고참인 루쓰 멕베이(Ruth McVey)는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동남아연구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낳았다고 주장했지만(McVey 1998), 21세기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던 글로벌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지역협력의 가속화라는 복잡한 대응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

16) 국제적 자원을 통해 동남아연구의 학문적 실효성을 입증하고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동남아를 단순히 소개하는 번역보다는 명저를 번역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남아를 사례로 하는 불후의 명작들 중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제임스 스캇(James C. Scott) 등의 작품들이 동남아를 전공하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것(문옥표 1998; 윤형숙 2002; 김춘동 2004)은 우리에게 다행이자 부끄러운 일이다.

17) 일본의 걸출한 인도네시아 연구자 다카시 시라이시(Takashi Shiraishi)는 일본인의 인도네시아 연구 중에서 독창성 있고 경쟁력 있는 연구업적을 선정하여 영문으로 번역 출판함으로써 일본의 동남아연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다. 우리도 연구 성과를 집단적으로 번역 출판하여 국제화의 가속화를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동아시아 연구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남아 연구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우리 동남아 연구자들은 이른바 "국제관계·지역전문가"(IR area specialist, 혹은 국제지역전문가: Moore 2004)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 · 지역전문가는 지역연구자가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연구 능력까지 겸비한 전문가들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국제관계이론의 성과와 현지지식을 결합시켜 국제관계이론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이로써 지역연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대두뿐만 아니라 그 저류에 흐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금융위기, 조류독감, 테러리즘, 분리주의, 난민문제, 인력이동, 지진해일, 교과서분쟁, 민족주의, 사회운동의 국제연대와 민주주의 확산 등 국내관계와 국제관계가 뒤얽힌 초국적 문제들의 대두는 국제관계 · 지역전문가들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요컨대 필자는 그 간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의 소수자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자력갱생의 척박한 연구 환경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남아연구 신세대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활동과 국제관계 · 지역전문가로의 변신을 촉구한다. 감히 동남아연구의 제3세대에게 연구와 노동을 실천적으로 결합한 "유기적 지식인" 모델로 연구자 공동체의 공고화를 꾀하고, 국제관계와 지역연구를 결합한 "국제관계 · 지역전문가" 모델로 당면한 하강기 연구 국면을 생산적으로 돌파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동남아시아연구』 1-1992-2005.

『동아연구』 1-49.

고우성·김성주·박종철·양길현·양승윤·윤진표·전제국·정영국. 2001. 『동남아의 정당정치』. 오름.

김 상. 2002. "싱가포르에 '한류'가 존재하는가?" 『동아연구』 42.

김경일 편.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김국진. 1986. "아세안제국 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의 실태." 『동아연구』 8.

_____. 1991. "동남아세아 지역연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방안 연구』.

김동엽. 2003.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의 재조명." 『동아연구』 45.

_____. 2005.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 경제위기와 마하티르를 넘어 신자유주의 국가로." 『동아연구』 48.

김민정. 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인식: 필리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5.

_____. 2005. "필리핀의 '피플 파워'와 중산층: '변화 없는' 사회의 역동성." 『동아연구』 48.

_____ 편. 2005.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사회, 지역사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및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_____·김영수·김영애·박장식·유석춘·제대식·조흥국·하 순·홍석준. 1997.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오름.

김영수·김영애·김형준·김홍구·박장식·소병국·신윤환·오명석·제대식·조흥국·홍석준. 2001. 『동남아의 종교와 사회』. 오름.

김예겸. 2003. "클리포드 기어츠의 자바 종교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연구』 45.

김춘동 역. James C. Scott. 2004.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노영순. 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인식과 평가: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5.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1992. 『동남아정치와 사회』. 한울.

_____ 역. 존 에스터린 외. 1991. 『동남아정치입문』. 박영사.

_____ 역. Clark D. Neher. 1993.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프레스.

_____. 1994. 『동남아의 정치변동』. 21세기한국연구재단 (김성주, 박사명, 소병국, 양길현, 양승윤, 윤진표, 이은호, 정영국 참여).

_____. 1995.『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21세기한국연구재단 (고우성, 길인성, 박종철, 배긍찬, 신윤환, 이광철, 이병두, 전제국 참여).
_____. 1996.『동남아의 정치리더십』. 21세기한국연구재단 (김성주, 윤진표, 박사명, 정영국, 고우성, 전제국, 양길현 참여).
문옥표 역. Clifford Geertz. 1998.『문화의 해석』. 까치.
박사명. 2004.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동아연구』47.
_____ 편. 2004.『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 안정과 변화의 갈림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_____ 편. 2005.『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신윤환. 1996. "연구논문 :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 적응과 변용."『동아연구』32.
_____. 1998.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와 지역연구: 비판적 검토." 이상섭·권태환 편.『한국의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2004. "동아시아의 발전과 변동: 회고적 재평가."『동아연구』46.
_____·이성형. 1996. "한국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국가전략』2:1, 155-187.
_____·이갑윤. 2004.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 인도네시아인들과 태국인들의 인식 비교."『동아연구』, 이상우, 이태욱 교수 퇴임기념 특별호.
안청시. 1981. "서언." 안청시·김광웅·임종철·김일철·이홍구.『동남아와 ASEAN』.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길현.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략."『동아연구』48.
오명석 편. 2004.『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유인선. 2005. "베트남 여조(黎朝)의 성립과 유교이념의 확립: 불교이념으로부터 유교이념으로."『동아연구』48.
윤진표 편. 2004.『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전략』.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_____. 2005.『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윤충로. 2003. "베트남공화국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정권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성과 한계."『동아연구』44.
윤형숙 역. Benedict Anderson. 2002.『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이동윤. 2002. "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과정: 1973년과 1992년의 민주화과정 비교."『동아연구』43.

이범준. 1986. "베트남공산주의운동의 기원과 전개." 『동아연구』 8.
이상섭·권태환 편.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성형. 2004.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구영록 교수추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한국정치연구소.
_____·전제성·김용복. 2004.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의 실태와 과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요한. 2002. "신국제질서 하의 중국,ASEAN 관계발전 전망." 『동아연구』 43.
이재현. 2002. "UMNO의 파벌주의와 충돌하는 말레이 민족주의." 『동아연구』 43.
이한우. 2002.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동아연구』 42.
_____. 2003. "베트남-중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동아연구』 44.
이홍구. 1981. "서문." 안청시, 김광웅, 임종철, 김일철, 이홍구, 『동남아와 ASEAN』.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성흥. 2002.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8권 2호.
전제성. 2002. "수하르또 치하 인도네시아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 없는 저항': 수라바야 제화공장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좌절." 『동아연구』 43.
_____. 2003.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동아연구』 45.
_____. 2004.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노동법 개정: 통제와 보호로부터의 '이중적 자유화'." 『동아연구』 47.
정연식 외 역. 존 펀스턴 편. 2005.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심산.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_____. 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타이인들의 역사인식: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5.
_____ 외 역. 밀턴 오스본. 1997.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_____·오명석·박사명. 1998. "동남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난경. 2002.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헌법개정." 『동아연구』 43.

Asian Survey, 2003 11/12월~2005년 9/10월 각 호.
Biernazki, W. E.. 1986.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daptation of Christianity to Korea and the Islamization of Indonesia." 『동아연구』 10.

Burke, B. 1999. "Antonio Gramsci and Informal Education." *The Encyclopedia of Informal Education*, http://www.infed.org/thinkers/et-gram.htm (검색일: 2006/02/09).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Critical Asian Studies, 2003-2005년 각 호.

Hwang In-Won. 2003. *Personalized Politics: The Malaysian State under Mahathir*. Singapore: ISEAS.

Journal of Asian Studies, 2000-2002년 각 호.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003-2005년 각 호.

KASEAS and AUN. 2000.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s*. KASEAS and AUN.

Moore, Gregory. 2004. "From the Ground Up: Recent Contributions of the China/Area Studies and Sino-American Relations Literature to IR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39).

Park Sa-Myung and Supachai Yavaprabhas. 2003. *Regional Cooperation and Identity Building in East Asia: In the Age of Post-Cold War Globalization*. KASEAS and AUN. 2003.

Park Seung Woo. 2004. "Korean Researchers in Southeast Asian Studies: Who They Are and What They Do."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n Studies in ASEAN and Southeast Asian Stuides in Korea*, Universitas Sains Malaysia, Penang, Malaysia, June 15-16.

Ruth McVey.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Craig J. Reynolds and Ruth McVey.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The Frank H. Golay Memorial Lectures 2 and 3.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Shin Yoon Hwan, and In-Won Hwang. 2004. "Setting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n Studies in ASEAN and Southeast Asian Stuides in Korea*, Universitas Sains Malaysia, Penang, Malaysia, June 15-16.

ABSTRACT

Dynamics and the Futur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Waiting for a Manifesto of the 'Third-Generation'

JEON, Je Seo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and evaluate the history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It has progressed so fast in the past 20 years. The past analyse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have revolved around two main focuses: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two-generation dichotomy. However,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research history survey should focus not only on research performance, but also on individual scholars and research institutions. Moreover, this research proposes three-generation concept. Crucially, there are duties of the emerging third gener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Despite the fast growth of two decades, the Southeast Asian studies is still the clear minority in Korean academia. In addition, it strives for resources to maintain their research institution. Therefore the third generation should arm itself with 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area specialist" and attitude of "organic intellectual".

Key Words: area studies, comparative politics, IR area specialist, organic intellectual, East Asia.